



“베트남의 NCST(National Centre for Natural Sciences and Technology)와 한국과학재단 사이에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정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과학자들을 위한 공동세미나, 상호 방문 연구는 두 국가 간의 과학과 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녹엔동옌(Nguyen Dong Yen·하노이 수학연구소 부교수·부경대학교 수리과학부 초청과학자)교수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한국의 대기업들에서 보듯 한국의 과학과 기술의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국인 베트남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한다.

부경대 수리과학부서 연구 활동한 베트남 녹엔동옌 교수

수리 최적화·최적제어 등 공동연구

지난해 2월 과총의 브레인 풀 프로그램 지원으로 한국에 온 베트남의 하노이 수학연구소 녹엔동옌교수는 부경대 수리과학부에서 이규명교수와 공동연구를 했다. 수리최적화·벡터최적화·최적제어 등을 연구한 옌교수는 지난 1년간 5편의 논문을 완성하여 저명 학술지에 투고했다.

과총지원으로 1년 체류

지난 1년간(2001년 2월 18일 ~2002년 2월 3일) 한국에 머무르며 브레인 풀(Brain-Pool)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부경대학교 수리과학부에서 이규명교수와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엔교수는 베트남 정부는 자연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베트남의 자연과학과 기술 수준은 빠른 경제 성장(지난 15년간 매년 경제성장률은 6~7%)에 비해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소개한다.

엔교수는 그러나 많은 베트남 수학자들은 수학을 베트남에서 더 인기있고 유용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수리 최적화와 변분부등식'이 주전공인 엔교수는 베트남에서 수리 최적화 분야는 하노이 수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현재 약 20명의 연구원이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어 그 연구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소개한다.

논문 5편 저명학술지 투고

현재 이규명교수팀과 함께 수리 최적화, 벡터최적화, 변분문제, 최적제어, 변분부등식 문제들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엔교수는 이 분야의 문제들은 수학의 수리 최적화이론 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이며, 응용수학의 한 분야로 간주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난 1년 동안 부경대 수리과학부 이규명교수와 함께 세계의 많은 수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리 최적화이론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의 존재성, 안정성, 민감도에 대해 공동연구를 해왔다는 엔교수는 지난 1년간 논문 5편을 완성하여 저명 학술지인 SIAM Journal on Optimization, Mathematics on Operations Research 등에 투고하는 등 이규명교수와 공동연구에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밝힌다. 엔교수는 앞으로 베트남에 돌아가서도 최적화 문제에 대한 안정성과 민감도 분석에 대한 연구와 특히 벡터 최적화문제의 해집합에 대한 연결성과 벡터 분수 최적화 문제의 해집합의 구조 문제를 하노이 수학연구소의 박사과정 학생들과 연구할 계획이다. 현재 방문 중인 부경대학교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엔교수는 약 5백명의 교수진과 대학원 학생을 포함하여 약 2만2천5백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라며, 대학교의 자연환경, 컴퓨터 네트워크, 도서관은 훌륭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그 동안 잘 갖추어진 한국사회, 오래된 문화 역사를 접하면서 많은 한국인 수학자들을 만났는데 모두 예의바른 사람들이었고, 그들 중 몇몇은 좋은 친구가 되었으며 그들의 도덕적 관념, 믿음과 철학에 친근한 느낌을 가졌다고 회고한다.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잊지 못할 일들이 있었지만 부경대학교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과 교수들을 위한 일일관광(부경대학교에서 준비해준 일일관광)과 2001년 8월 6일에서 10일까지 경상대학교와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비선형 함수 해석학과 응용에 관한 제7회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한 일, 2001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수리 최적화이론과 응용에 관한 제3회 한국-베트남 공동세미나'에 참석하여 논문발표한 일 등은 베트남에 돌아가서도 잊혀지지 않을 즐거운 기억이 될거라고 흐뭇해한다.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매일 아침 3~4km 달리기, 인터넷의 웹사이트에서의 뉴스 읽기, 음악 듣기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스포츠 게임 보기 등을 즐겼다는 엔교수는 음력을 쓰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음력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인 모두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인사도 잊지 않았다.

현재 베트남의 하노이 수학연구소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엔교수는 최적화, 비원활해석학, Set-Valued Analysis, 변분부등식, 수치해석 및 컴퓨터계산학이 전공이다. ㉞

송해영<본지 44원기자>